



신태용 감독

神바람, 우승까지 불어라

신태용호 AFC U-23 챔피언십 결승행

전반전 수비·후반전 승부 적중... 후반 투입 황희찬·문창진 골 합작 카타르 3-1 꺾고 30일 日과 격돌... 세계 첫 8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결승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물리치고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7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사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카타르와 대회 4강전에서 후반 3분 류승우(레버쿠젠)의 선제골과 후반 44분 권창훈(수원)의 결승골, 후반 추가시간 문창진(포항)의 쐐기골이 이어지며 3-1로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 결승 진출에 성공, 최소 2위를 확보하며 이번 대회 3위까지 주어지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차지했다. 그동안 7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해 이탈리아와 최다 연속 출전 공동 1위 기록을 세웠던 한국은 이로써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이라크를 2-1로 물리친 '속적' 일본과 오는 30일 오후 11시 45분 결승전을 치러 이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한다.

전반전에 수비적인 전술로 카타르의 힘을 빼고 후반전에 승부수를 띄운 신태용 감독의 전술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경기였다.

카타르의 날이 선 공격을 대비해 수비에 중점을 둔 3-4-3 전술을 처음 꺼낸 한국은 최전방에 김현(제주)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세우고 좌우 날개에 류승우(레버쿠젠)와 권창훈(수원)을 기용했다. 중원에는 심상민(서울), 황기욱(연세대), 이정민(제주), 이슬찬(전남)이 나섰고, 스리백(3-back)에는 왼쪽부터 송주훈(미토 홀리호크), 박용우(서울), 연제민(수원)이 배치됐다. 골키퍼 장갑은 김동준(성남)에게 돌아갔다.

예상대로 카타르는 8강전까지 총 11골을 뽑아낸 공격력을 과시하듯 전반 초반부터 한국을 몰아쳤다. 그 중심에는 왼쪽 풀백인 주장 알멜카림 하산의 빠른 돌파가 바탕이 됐다.

한국은 전반 10분 모에즈 알리에에게 헤딩 슈팅을 내줬고, 전반 18분 프리키에 이은 문전 혼전 상황에서 또다시 알리에에게 슈팅을 허용했지만 몸을 날린 연제민의 육탄 방어로 위기를 넘겼다.

카타르의 빠른 공격과 압박에 고전한 한국은 전반 25분 황기욱의 중거리포 시도와 더불어 최전방에 포진한 장신 스트라이커 김현의 머리를 겨냥한 포스트 플레이를 펼쳤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반을 0-0으로 마무리했다.

신태용 감독이 선수 교체 없이 후반을 시작한 가운데 기다리던 선제골은 3분 만에 터져 나왔다. 주인공은 류승우였다.

한국은 후반 3분 역습 상황에서 황기욱(연세대)이 내준 공간 패스를 류승우가 골대를 비우고 뛰어 나온 카타르의 골키퍼를 따돌리는 재치 있는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골대로 굴러가는 볼을 카타르의 수비수 마팀 모하메드가 끝까지 쫓아갔지만 소용없었다.

한국은 후반 14분 다리에 경련을 호소한 황기욱 대신 문창진(포항)을 투입하고 3-4-3 전술에서 4-4-2 전술로 변화를 줬다.

하지만 후반 18분 카타르의 알리 마사드의 헤딩 슈팅을 골키퍼 김동준의 슈퍼세이브로 막아낸 한

한국 역대 올림픽 본선 성적

1988년 서울	조별리그 탈락
1992년 바르셀로나	조별리그 탈락
1996년 애틀랜타	조별리그 탈락
2000년 시드니	조별리그 탈락
2004년 아테네	8강
2008년 베이징	조별리그 탈락
2012년 런던	동메달
2016년 리우	?

국은 끝내 후반 34분 아흐메드 알리에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잠시 위기에 빠졌다.

신 감독은 동점골을 내준 뒤 곧바로 발목 부상으로 벤치에 있던 황희찬(잘츠부르크)을 투입해 분위기를 반전에 나섰다.

황희찬은 김현과 함께 최전방에서 카타르의 수비진을 흔들면서 기회를 만들었다.

마침내 한국은 후반 44분 조별리그 예선전에서 헤트릭을 작성한 권창훈이 원발로 극적인 결승골을 뽑았다. 황희찬의 패스를 받은 김현이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쇄도한 이슬찬(전남)에게 볼을 이어줬다. 볼을 받은 이슬찬이 크로스를 올리지 권창훈이 골대 정면에서 원발로 방향을 바꿔 결승골을 쐈었다.

승리를 눈앞에 둔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 황희찬의 도움을 받은 문창진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원발 슈팅으로 쐐기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자축했다. /연합뉴스

‘와일드 카드’ 누구 뽑을까

최전방 공격 강화 손흥민·멀티 장현수 등 거론

세계최초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의 대업을 완수한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이 이제 2016 리우 올림픽을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 바로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와일드카드(23세 이상 선수) 선정이다.

올림픽 무대에 나설 수 있는 선수는 18명이다. 이 가운데 골키퍼 2명을 빼면 16명의 필드플레이어만 출전할 수 있다.

와일드카드는 경험 많고 노련한 선수를 통해 취약한 포지션을 강화하고 팀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와일드카드로 뽑힌 선수들이 후배들과 제대로 융합하지 못하면 팀 분위기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부담도 있다.

이 때문에 와일드카드는 단순히 실력만 빼어난 게 아니라 인성도 중요한 만큼 사령탑으로서의 신중하게 고를 수밖에 없다.

역대 한국 축구에서 가장 성공한 와일드카드 사례는 2012년 런던 올림픽으로 손꼽힌다. 당시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서울), 김창수(전북), 정성룡(가와사키 프론타레)을 선택했다.

홍 감독은 공격수-수비수-골키퍼로 와일드카드를 구성, 흔들리는 수비진을 잡아내고 최전방의 공격력을 극대화해 한국 축구 사상 첫 올림픽 동메달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번 AFC U-23 챔피언십에 나선 신태용 감독 역시 비슷한 고민에 빠졌다. 최전방 공격원의 공격력이 날카롭지 못했고, 수비진의 견고함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8강전에서는 골키퍼의 불안함까지 연출했다.

이 때문에 신 감독 역시 최전방 공격수를 필두로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를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골키퍼는 김동준(성남)이 견재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가장 먼저 공격전에 힘을 줄 수 있는 후보로는 ‘손샤인’ 손흥민(토트넘)이 꼽힌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소속팀의 차출 거부 때문에 합류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손흥민은 황희찬(잘츠부르크), 김현(제주)으로 구성된 최전방 공격전에 파괴력을 더해 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이다.

올림픽 역시 의무차출 규정이 없어 소속팀의 허락이 필요하다. 올림픽이 치러지는 8월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하는 만큼 소속팀을 설득하는 게 과제다. 손흥민이 아직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차출의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다.

중원과 수비진에서는 슈틸리케호에서 검증받은 젊은 자원들이 합류할 수 있다.

슈틸리케호에서 멀티플레이어로 거듭난 장현수(광저우 푸리)가 가장 눈에 띈다. 장현수는 중앙 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 오른쪽 풀백까지 소화하며 슈틸리케호의 핵심 선수로 성장한 만큼 신태용호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포백(4-back) 수비에 안정을 주는 차원에서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나 김영권(광저우 헝다) 등 검증된 선수들이 와일드카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가 지난 26일 태국 방콕에서 무앙통 유니타이트의 안방에서 연습 경기를 가졌다. 사진은 위에서 내려다 본 경기장 전경. <노고지리 제공>

팀을 위해 뛰어라

무앙통 유니타이트와 연습경기...남기일 감독 “더 뛰고 희생하며 약점 극복해야”



광주FC 태국 캠프를 가다

2016시즌 비상을 꿈꾸는 광주FC의 전지훈련이 눈물과 웃음 속에 전개되고 있다.

광주는 지난 26일 2015시즌 태국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인 무앙통 유니타이트의 안방을 찾아 태국에서의 3번째 연습경기를 가졌다. 터줏대감인 여름(MF)과, 송승민(MF), 주현우(MF), 김영민(DF) 그리고 수문장 최봉진을 중심으로 J2리그에서 합류한 김정현, 조성준, 김진환, 김민혁 등 이적생이 호흡을 맞췄다. ‘루키’ 이민기와 정동운도 스타팅 멤버로 나섰다.

아직은 서로가 낯선 이들이 손발을 맞추는 시간. 치열한 힘겨루기 속에 광주는 조성준의 선제골로 1-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후반전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나름대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기였다.

하지만 남기일 감독의 눈은 매서웠다. 남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가진 그라운드 미팅에서 “팀을 위해서 뛰어라”며 큰소리를 쳤다.

남 감독은 대부분의 선수를 교체 멤버로 투입하면서 전체적인 움직임과 전술 이해력 등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눈여겨 본 것은 투지와 팀을 위한 희생이었다.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는 광주에게는 많은 스쿼드가 가장 큰 고민이다. 승격과 잔류의 역사는 이 약점을 딛고 팀워크와 희생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만큼 한 발 더 뛰는 축구, 팀을 위한 플레이를 주문하고 있다.

이날 남 감독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선수들의 모습도 기대했다. 경기는 1-1 상황이었지만 벤치에서는 “지고 있다”는 소리가 여러 차례 나왔다. 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장, 승부를 뒤집기 위한 투지와 전략을 보여주라는 것이었다.

그라운드 미팅에서 남 감독은 “교체해서 들어갔으면 전반전보다 더 많이 뛰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5분, 10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며 선수들에게 큰소리를 쳤다.

이정호 수석 코치도 “훈련을 할 때부터 기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걸 잡는 것은 선수들의 몫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거워진 분위기를 푸는 역할은 베테랑 정조국과 주장 이종민이 맡았다. 두 선수 모두 앞선 연습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이날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지만

꼼꼼하게 후배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반성할 수 있는 것은 반성하자”고 운을 뗀 정조국은 “분위기는 다운되지 않도록 하자”며 후배들을 독려했다. 이종민도 “몸으로 해보고 겪어 봐야 한다. 다시 생각하고 더 좋은 경기를 하도록 하자”며 무거워진 그라운드 미팅을 마무리 지었다.

경기가 끝난 후 “마음에 드는 플레이를 한 선수가 하나도 없다”며 냉정한 평가를 했던 남 감독. 그는 “왜 칭찬에 인색하냐?”는 질문에는 “칭찬은 팬들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다”며 무시무시한 클래식 무대에서 버틸 수 있는 선수를 만드는 험난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 할 수 있는데, 잘 할 수 있는데”라는 애정이 어린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며 슬쩍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신이 속 들게 선수들을 다그쳤던 남 감독은 27일 저녁 선수들에게 야시장 투어라는 특별 선물을 썼다. 훈련과 경기에 대한 긴장감으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라는 의미였다.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섭게 하지만 따뜻한 형님의 마음으로 잔류를 넘어 클래식 안착을 목표로 한 ‘남기일호’의 2016시즌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방콕=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